

01 목회권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매일 빛을 밝혀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격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2 2020년 봉사자

2020년 1부예배(7시) 안내, 헌금, 찬양대등으로 섬기실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부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향존직 모임

다음 주 12월 15일 오후예배 후 3시10분에 본당에서 향존직 모임이 있습니다. 향존직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2020년 부서별 임명안(1차)

2020년 부서별 임명안(1차)이 나왔습니다. 2층 로비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사진촬영

다음 주까지 2부, 3부 예배 후 2020년 요람을 위한 개인 사진 촬영이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06 새가족교육

새가족교육 5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새 가족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을 배워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 : 4층 도서관, 시간 : 12:50~1:40

■식당봉사

- 12/08 : 5지역(조옥순) 12/15 : 6지역(장복실) 12/22 : 1지역(이현경)
- 12/29 : 2지역(이선옥) 01/05 : 3지역(최현숙) 01/12 : 4지역(김미숙)

모임안내

1. 여성교회

- 날짜: 12/8(주일)
- 장소: 본당
- 시간: 오후 3:20

2. 남선교회

- 날짜: 12/8(주일)
- 장소: 가브리엘홀
- 시간: 오후 3:20

3. 축구선교단(명성FC)모임

- 날짜: 12/8(주일)
- 장소: 초월읍생활공원
- 시간: 오후 4:50~7:00

◎교우동정

사랑의식탁

- 이정희,김순숙집사 아들 결혼감사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해외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지난주 설교 말씀

제 목: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1:21)

대림절은 AD4세기 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 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대강절,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엔 특별히 4개의 초를 세우고 켜고, 짙은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네 개의 초를 세웁니다. 4주 동안 매 주일 한 개씩 초를 켜는데, 이 네 개의 초가 모두 켜지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를 네 개 세우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에 속하여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3:20 '불지자더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한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시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과거도 묻지 않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다고 거부하여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물며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여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도바울처럼 세상에서 큰 자리며 성공한 사람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심지어 가두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핍박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수치의 형벌에 죽었다고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단번에 예수님에게 정복당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순종하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두려워 로마를 등지고 도망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며,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가꾸로 달려 그 역시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문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아직 같이 살거나 동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은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하심과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이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실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죄의 목적을 향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2019년 표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5:7)

기	주	기	도	문	2부 송길선	권사
					3부 박인순	장로

성 경 봉 독..... 사7:14 인 도 자

찬 양..... 2부 호 산 나 찬양대
3부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하시는 예수님”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1부 예배는 명성교회 위성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00 인도: 윤호식 목사

(말씀:에베소서 강해)

예배 순서자

◎ 교 회 학 교

◎교육과 양육

중 보 기 도

◎ 전 도

◎월례회모임

◎섬기는 이들

◎함께하는 선교